

## 他人들의 屬性 知覺과 P-O-X 狀況의 均衡

洪 大 植

誠信女子大學校 心理學科

洪大植(1985, 1986)의 대인관계 구조에 관한 모형을 기초로 해서, (1)친밀한 인물에 대한 긍정적 속성들의 지각의 수가 중성적 인물, 친교중단 인물 및 싫은 인물에 대해서 보다 더 크고 부정적 속성들의 수는 그 반대일 것이며, (2) 단일대상보다 중복대상들은 P-O-X 상황들에서의 態度一致度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다. 첫번째 연구에서, 긍정적 특성들, 부정적 특성들 및 類似性들의 수는 가설과 일치되게 나타났으나, 非類似性들의 수는 가설과는 반대로 친밀한 인물에 대해서 가장 컸다. 두번째 연구에서, 대상의 중복성은 P-O-X 상황들의 기대도와 유쾌도 평정에서 태도일치도 요인과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서, 가설 2는 부정되었다. 이러한 結果들은 對象들의 중요성,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의 비율 및 특성과 유사성의 비율의 면에서 논의되었으며,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修正과 擴張이 시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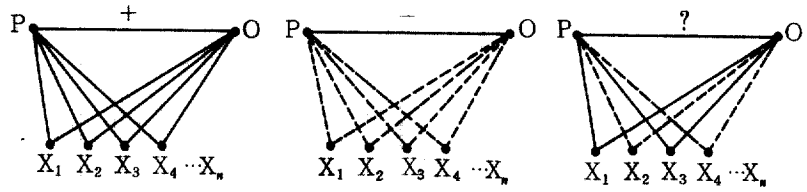
Heider(1946, 1958)와 Newcomb(1953, 1959)이 지적한 바와 같이 對人關係의 基本 要素들은 지각자(P), 타인(O) 및 이 둘에 공동으로 관련된 어떤 대상(X)이며, 이들 要素들 간의 관계들은 대인관계의 構造를 이룬다. Heider(1946, 1958)는 P-O-X (또는 Q) 體制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 요소들 간의 관계의 성질들을 감정관계와 단위관계로 구분하고 이들 관계들의 균형과 불균형을 규정한 바 있다. 그 후에 Heider의 均衡理論을 검증하고자 한 대부분의 연구들(예: Jordan, 1953; Crockett, 1974; Fuller, 1974; Insko, Songer 및 McGarvey, 1974; Rodrigues, 1965, 1966, 1967, 洪大植, 1980a)은 각각 하나의 P, O 및 X가 포함된 三元關係들을 취급하여 왔다.

Heider(1946, 1958)의 均衡理論은 대인관계의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대인관계에 대한 理論的 分析을 촉진시켜 왔지만, 실제의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Kiesler 등(1969)은 均衡理論이 개개 대인관계들의 複雜性을 취급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三元關係들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관계들과 다른 관련된 사람들이나 대상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

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artwright와 Harary(1956)는 三元關係보다도 더 큰 構造들의 균형을 취급하였다. 그들은 많은 요소들 간의 관계들을 方向圖表(directed graph)에 관한 수학적 모형으로 公式化하면서, 각 관계의 부호들의 組合의 正負의 비율에 의해 균형의 程度를 결정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模型의 세련성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은 對人關係의 構造나 發展에 대한 含蓄的 意味가 적고 따라서 理論的 發展이 거의 없었다.

한편, 洪大植(1985)은 Heider의 모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對象들과 他人들이 포함된 對人關係와 社會的 態度的 構造들을 취급하였다. 洪大植(1985)의 模型은 實際의 대인관계나 태도의 구조들에는 많은 他人들과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構造들을 記述하였다. 이 模型은 正的, 負的 및 中性的(또는 兩面感情的)인 P와 O 간의 관계(P/O)를 분류하였고 이 각각의 關係가 상이한 態度一致度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正的 P/O關係는 P와 O 간에 여러 對象들에 대한 態度들이 一致되는 構造를 갖으며, 負的 P/O關係는 여러 態度들이 不一致되는 構造를 갖는다. 한편, 兩面感情的이거나 中性的 P/O關係는 對象들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들의 一致와 不一致가 혼합되어 있는 構造를 갖는다. 이러한 P/O關係 構造들은 도 1에 제시되어 있다. 도 1에 있는 P/O關係의 構造들은 각 構造의 均衡이 P/O關係의 正負와 態度一致와 不一致의 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正的 P/O關係의 構造    負的 P/O關係의 構造    兩面感情的 P/O關係의 構造



[도 1] P/O關係의 正負와 態度一致如否들에 따른 正的, 負的 및 兩面感情的 P/O關係들의 構造들  
(對象 X에 대한 P/X와 O/X 관계들은 態度가 一致된 狀況은 實線으로, 그리고 態度가 不一致된 狀況은 點線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의 對人關係 構造들은 P의 知覺들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에 P가 O에 대해 갖는 屬性들(性格特性들 또는 特徵들과 유사성들 또는 공통점들을 포함함)로 귀결될 수 있다. 洪大植(1986)은 앞에서의 P/O關係 構造의 模型이 X에 대한 P와 O의 감정관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하고, Heider(1958)가 제안하였던 두 형태의 관계들, 즉 감정관계와 단위관계의 모두를 P의 O에 대한 속성들의 지각의 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P/X關係

와 O/X關係의 각각에 대해서 단위관계(U)와 감정관계(L)를 가정하면 이들 두 관계는 다음의 4가지 組合들을 취할 수 있다. pUx - oUx 組合, pLx - oLx 組合, pLx - oUx 組合 및 pUx - oLx 組合이다(여기에서 U와 L 關係들은 각각 그 반대 관계들인 notU와 DL로 代置될 수 있다). P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각 組合은 P에 대해서 자신과 O간의 共通性이나 類似性과 O의 特性들의 知覺을 일으킬 수 있다. pUx - oUx 組合(예: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속한 것)은 P로 하여금 共通性이나 유사성을 지각하게 만들 것이며, pLx - oLx (예: P와 O가 민주화를 지지하는 것) 또한 P로 하여금 共通性이나 유사성을 지각하게 만들 것이다. 한편 pLx - oUx 組合(O는 P가 좋아하는 외모를 갖고 있는 것)은 O의 特性들이나 特徵들을 지각하게 만들 것이며, pUx - oLx 組合(예: O는 P의 유능성을 좋아하는 것)은 또한 O의 特性들(예: 이해성 있다)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分析에 의하면, P와 O간의 관계는 P의 知覺을 중심으로 볼 때에 P의 O에 관한 特性들과 類似性들의 知覺으로 歸結되게 된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P/O關係들은 P가 O에 관해서 갖는 信念들(beliefs)에 의해서 記述될 수 있다.

한편, 對人知覺의 次元들에 관한 多重變因分析 연구들에서는 주로 他人들에 관한 特性知覺에 관계하여 왔다. 예컨대, Osgood, Suci 및 Tannenbaum (1957)은 要因分析法을 사용해서 評價, 能力 및 活動의 次元들을 발견하였으며, Norman(1963)은 외향성, 유쾌성, 양심성, 정서안정성 및 교양성을 발견하였으며, Rosenberg (1968)은 多重次元分析法(MDS)을 사용해서 Osgood 등(1957)과 유사한 次元들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보편적인 對人知覺의 次元들이나 내용들을 규명해 준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개개의 대인관계 구조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수한 P/O關係를 이해하고 예언하기 위해서는 他人의 屬性들에 대한 具體的인 分析, 즉 屬性들의 수와 강도 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對人魅力과 態度類似性간의 관계를 연구한 Newcomb, 1961, 1963)과 Byrne (Byrne, 1961; Byrne 과 Nelson, 1964) 및 Kandel (1978)의 연구들은 여러 대상들에 대한 態度類似性이 대인매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앞의 多重變因分析 연구들처럼 개개 대인관계의 構造를 記述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對人關係構造의 記述과 豫言에는 P가 O에 대해서 知覺하고 있는 屬性들, 즉 特性들과 類似性들의 수와 강도에 대한 分析이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洪大植(1986)은 각각 52명의 남녀의 동성과 이성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장 싫어하는 인물” 및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간의 인물”의 屬性知覺들의 數와 評價強度를 측정하였다. 그 結果 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 $\bar{X} = 6.44$ ; 특성 =

4.63, 유사성 = 1.81)에 대한 속성지각들의 수가 “중성적 인물”(X = 4.36; 특성 = 3.24, 유사성 = 1.12)이나 “가장 싫어하는 인물”(X = 4.84; 특성 = 3.82, 유사성 = 1.62)에 대한 속성지각들의 수보다 더 컸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각 인물에 대한 評價値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각 인물의 속성들의 正負가 分析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本 연구에서는 對人關係의 構造를 分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친밀한 인물, 중성적 인물, 매우 싫은 인물 및 親交中斷 인물에 대해서 갖는 긍정적 특성들과 부정적 특성들과 그리고 유사성들과 비유사성들의 知覺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수적으로 P-O-X 狀況들에서 P/X와 O/X 관계들을 단일로 구성하기 보다는 중복으로 구성했을 때의 狀況의 期待度와 愉快度 知覺들이 측정되었다. 이것은 複數의 X들이 P/O관계에 關여되게 될 때에 影響주는 요인들을 실험적으로 알아 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檢證될 假說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의 친밀한 인물에 대한 긍정적 特性들과 類似性들의 지각들은 중성적 인물 및 매우 싫은 인물이나 親交中斷 인물에 대한 긍정적 特性들과 類似性들의 지각들보다 더 많고, 부정적 특성들과 非類似性들에 대해서는 그 반대일 것이다.

(2) P-O-X 狀況들에서 X의 수를 한 개보다 두 개로 증가시킬 때에 狀況에 대한 態度一致度要因의 影響은 증가될 것이다. 첫번째 假說은 본 연구에서 취급한 대인관계의 구조 모형에서 직접 유도된 것이며, 두번째 假說은 P/O關係에서 X의 수가 증가할수록 狀況들의 지각에서 X에 대한 比重이 커지고 따라서 態度一致度の 影響이 커질 것이라는 假定에 기초되었다. 이들 假說들을 檢증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번째 연구에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特性들과 類似性들의 지각을 취급하였고, 두번째 연구에서는 P-O-X 狀況들에서의 重複 X의 效果를 취급하였다.

## 연구 1

이 연구에서는 洪大植(1985, 1876)의 模型에서 직접적으로 예언해 주는 바와 같이 P/O關係의 正負要因에 따른 O의 屬性들에 관한 信念數가 취급되었다. 洪大植(1986)의 연구에서 正, 負 및 中性的 P/O關係들만이 취급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親交關係가 中斷된 P/O關係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親密한 關係의 진전에 關連된 P의 O에 대한 信念들의 特征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P/O關係의 지속성이나 特征들도 더욱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P/O關係의 구조적 特征들을 보다 더 詳細化시켰다.

被驗者 : 誠信女子大學校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인문과학대학 학생들 268 명이 본 연구의 피험자가 되었다. 이들 가운데에서 “중성적 인물”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2 명의 학생이 자료처리의 편의상 제외되었다.

材料 및 節次 :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과 성별이 같고 연령이 비슷한 타인들에 관한 피험자들의 特性과 類似性 지각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인관계에 관한 1 페이지의 지시문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각 인물에 대한 特性들과 類似性들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4 매의 반응기록지가 지시문에 첨가되었다.

피험자들의 他人들에 대한 關係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친밀한 인물, 중성적 인물, 싫은 인물 및 친교관계를 중단한 인물이 지정되었다. “친밀한 인물”은 2 개월 이상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중성적 인물”은 좋지도 싫지도 않고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싫은 인물”은 대면하기는 하지만 매우 싫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친교중단 인물”은 1 개월 이상 친하게 지내다가 싫어져서 친구관계를 중단한 사람으로서 규정되었다.

피험자들에게 위의 네 인물들의 이름(또는 이름의 略號)을 네 매의 기록지 상단에 記入하게 한 다음에, 각 인물들의 特性들과 피험자와의 類似性들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特性들은 他人들이 갖고 있는 特徵들과 資質들(예 : 침착하다, 키가 작다, 운동을 잘한다, 이기적이다)로서 규정되었다. 피험자와 유사성(또는 공통점)과 비유사성(또는 비공통점)의 예들로서는 취미(예 : 음악)가 같다, 같은 종교 씨클이다, 고등학교 동창이다, 고향이 같다, 시국관이 다르다 및 취미가 다르다가 제시되었다.

각각의 대상인물들에 대한 特性들은 각 기록지의 앞면에, 그리고 유사성들은 각각의 기록지의 뒷면에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각 대상인물들에 관한 記述順序는 피험자가 임의로 정하게 하였다. 피험자들에게 각 대상인물들에 관한 특성들과 유사성들을 기록한 다음에 각 특성의 긍정적 및 부정적 성질을 특성의 옆에 “긍”과 “부”로서 표시하게 하였고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각각 “유”와 “비”로서 표시하게 하였다.

네 명의 대상인물들에 관한 반응들의 빈도에 대해서 긍정성과 부정성 및 유사성과 비유사성의 면에서 平均值들이 계산되었고, 대상인물들 간의 차이가 t 檢證에 의해 검증되었다.

## 結 果

본 연구의 假說 1 은 피험자에게 親密한 인물에 대한 特性들의 數와 類似性들의 數들이 中性的 人物이나 親交中斷人物 및 싫은 人物보다 더 클 것이고,

부정적 특성들과 비유사성들은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假說을 검증하기 위해서 네 종류의 대상인물들에 대한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 및 유사성과 비유사성의 빈도들에 대한 平均値들이 계산되었고(표 1), 그 差異들이 검증되었다(표 2).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네 종류의 대상인물들에 대한 피험자 총수는 친밀한 인물(N=266), 중성적 인물(N=266)에 대해서는 모든 피험자들이 반

(표 1) 호오인물들에 대한 屬性知覺들의 평균수와 표준편차(괄호내)

호오인물	특 성		소 계	유 사 성		총 계	
	긍정적 특성	부정적 특성		유사점	비유사점		
친밀한 인물(A) (N=266)	4.05(1) (1.96)	1.56(4) (1.28)	5.61(1) (2.44)	2.88(1) (1.57)	1.64(1) (1.21)	4.52(1) (2.05)	10.13(1) (4.07)
중성적 인물(B) (N=266)	2.19(2) (1.38)	1.69(3) (1.26)	3.88(3) (1.69)	1.51(2) (.94)	1.40(3) (1.03)	2.91(2) (1.41)	6.79(2) (2.75)
친교중단 인물(C) (N=206)	1.41(3) (.72)	2.20(2) (1.51)	3.61(4) (1.59)	1.30(3) (.93)	1.53(2) (1.11)	2.83(3) (1.37)	6.44(3) (2.31)
싫은 인물(D) (N=241)	1.22(4) (1.05)	2.67(1) (1.66)	3.89(2) (1.77)	1.17(4) (.84)	1.32(4) (1.03)	2.49(4) (1.01)	6.38(4) (2.41)

\* 평균치들의 順位임.

(표 2) 호오인물들 간의 속성수의 평균차이와 차이의 의의도(t)

差異源	특 성		소 계	유 사 성		총 계	
	긍정적 특성	부정적 특성		유사점	비유사점		
A - B (N=266)	1.86 (14.11)**	-.13 (1.17)	1.73 (19.17)**	1.37 (14.27)**	.24 (2.72)**	1.61 (14.56)**	3.34 (16.49)**
A - C (N=194)	2.47 (20.56)**	-.64 (4.68)**	1.83 (11.45)**	1.35 (13.37)**	.07 (.68)	1.42 (11.39)**	3.25 (13.87)**
A - D (N=241)	2.82 (21.16)**	-1.10 (8.56)**	1.72 (12.29)**	1.70 (16.98)**	.35 (3.67)**	2.05 (16.16)**	3.77 (16.26)**
B - C (N=194)	.70 (6.03)**	-.52 (3.97)**	.18 (1.38)	.22 (2.44)*	-.20 (2.09)*	.02 (.16)	.20 (1.11)
B - D (N=241)	.97 (9.58)**	-.98 (9.08)**	.01 (.09)	.35 (4.41)**	.07 (.90)	.42 (4.68)**	.41 (2.64)**
C - D (N=206)	.22 (2.49)*	-.42 (3.39)**	-.20 (1.62)	.17 (2.08)*	.20 (2.12)*	.37 (3.72)**	.17 (1.01)

\* P < .05. \*\* P < .01.

응한 반면에, 싫은 인물(N=241)과 친교중단 인물(N=206)에 대해서는 반응 누락들이 있었다. 이것은 피험자들의 대인관계 상황들이 부정적 인물들보다도 긍정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네 종류의 대상인물들의 긍정적 특성들의 平均値들은 그 크기가 친밀한 인물( $\bar{X}=4.05$ ), 중성적 인물( $\bar{X}=2.19$ ), 친교중단 인물( $\bar{X}=1.41$ ) 및 싫은 인물( $\bar{X}=1.22$ ) 順이었으며, 대상인물들간의 差異들은 (표 2)에서와 같이 모두  $P<.01$  수준에서 有意하였다. 따라서 肯定的 特性의 면에서 假說 1은 지지되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네 종류의 대상인물들의 부정적 특성들의 平均値들은 그 크기가 싫은 인물( $\bar{X}=2.67$ ), 친교중단 인물( $\bar{X}=1.51$ ), 중성적 인물( $\bar{X}=1.69$ ) 및 친밀한 인물( $\bar{X}=1.56$ )의 順으로 나타났고, 대상인물들 간의 差異들은 모두  $P<.01$  수준에서 有意하였다. 따라서 否定的 特性의 면에서, 假說 1은 지지되었다.

피험자들과 네 종류의 대상인물들과의 類似性 지각들의 平均値들은 그 크기가 친밀한 인물( $\bar{X}=2.88$ ), 중성적 인물( $\bar{X}=1.52$ ), 친교중단 인물( $\bar{X}=1.30$ ) 및 싫은 인물( $\bar{X}=1.17$ ) 順으로 나타났고, 대상인물들 간의 差異들은 모두  $P<.05$  수준 이상으로 有意하였다. 따라서 類似性의 면에서, 假說 1은 지지되었다. 네 종류의 대상인물들과의 非類似性 지각들의 平均値들은 그 크기가 친밀한 인물( $\bar{X}=1.64$ ), 친교중단 인물( $\bar{X}=1.53$ ), 중성적 인물( $\bar{X}=1.40$ ) 및 싫은 인물( $\bar{X}=1.32$ )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친밀한 인물과 중성적 인물 사이 및 친밀한 인물과 싫은 인물 사이의 差異는  $P<.01$  수준에서 有意하였다. 이러한 結果들은 假說 1을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特性들과 類似性을 모두 합친 屬性들의 平均치들은 그 크기가 친밀한 인물( $\bar{X}=10.13$ ), 중성적 인물( $\bar{X}=6.79$ ), 친교중단 인물( $\bar{X}=6.44$ ) 및 싫은 인물( $\bar{X}=6.38$ )의 順으로 나타났고, 중성적 인물과 친교중단 인물 사이와 친교중단 인물과 싫은 인물 사이의 差異들을 제외하고 대상인물들 사이의 差異는 모두  $P<.01$  수준에서 有意하였다. 전체 속성수의 平均치의 크기의 면에서, 친밀한 인물은 다른 세 종류의 대상인물들 보다 훨씬 더 컸으며, 나머지 세 종류의 대상인물들 간의 차이는 매우 작았다.

## 論 議

본 연구의 結果들에서 긍정적 특성들의 수는 P/O關係가 친밀할수록 더 많았고, 부정적 특성들의 수는 P/O關係가 친밀할수록 더 작았으며, 類似性들의 수는 P/O關係가 긍정적일수록 더 많았다. 이들 結果들은 본 연구의 假說을 지지해 주었다. 이는 대인매력의 증가가 긍정적 특성들의 증가, 부정적 특성

들의 감소 및 유사성들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한편, 非類似性的의 수는 假說과는 반대로 친밀한 인물이 중성적 인물이나 싫은 인물 보다 더 많았다. 이는 P/O關係에서 非類似性이 類似性과는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類似性들의 지각은 P/O關係의 매력도를 증가시켜 주지만, 非類似性들은 P/O關係의 매력도에는 관련이 없는 이 結果들은 態度類似性과 매력 간의 관계에 관한 모형(예: Byrne, 1971)에도 중요한 시사를 해 주고 있다. 즉, P/O關係의 매력은 태도의 類似性 要因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태도의 非類似性 要因과는 무관한 점이 그 模型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非類似性들이나 非共通性들이 P/O關係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데에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이러한 結果는 P/O關係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에 중요한 시사를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P/O關係가 감정과 단위 관계들의 組合 형태에 따라  $pU_x - oU_x$ ,  $pL_x - oL_x$ ,  $pL_x - oU_x$  및  $pU_x - oL_x$ 로서 구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전자의 두 組合들이 주로 特性들을 지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이러한 시사에 의하면, 類似性들의 知覺을 일으키는 전자의 두 유형들은 P/O關係의 매력도 減少에서 적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후자의 두 유형들은 屬性들의 지각을 일으키고 따라서 P/O關係의 매력도의 增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P/O關係의 매력도에 非類似性的의 數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P/O關係의 매력도에 非類似性 자체가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O關係들에 개재되는 非類似性들이나 非共通點들이 數만을 分析하였다. 이 數 자체에는 對象에 대한 重要性의 要因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아마 친밀한 인물에 대한 非類似性들의 지각은 대부분이 P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이 없는 대상들에 의해서 일어났을 수 있다. 한편, 친교관계중단 인물이나 싫어하는 인물에 대한 非類似性들의 지각에는 P에 대해서 보다 더 중요한 대상들에 의해 일어났을 수 있다. 앞으로 P/O關係들에 대한 非類似性的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對象에 대한 重要性 要因이 고려되어야만 될 것이다.

(표 1)의 자료에서 긍정적 특성과 유사성(즉, 正的 屬性들)의 總數들과 부정적 속성과 비유사성(즉, 負的 屬性들)의 總數들의 比를 계산해 보면, 正的 屬性들의 比는 친밀한 인물에 대해서 .68, 중성적 인물에 대해서 .56, 친교중단 인물에 대해서 .44 및 싫은 인물에 대해서 .38 이었다. 이것은 P/O關係가 正的일수록 正的 屬性들의 比率이 증가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結果들은 P/O關係의 性質이 순수한 正的 屬性들이나 순수한 負的 屬性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 준다. 따라서 P/O關係의 구조들에 관한 모형은 P가 지각하는 屬性들의 正과 負의 比率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일상적인 대인관계들에서 오로지 正的인 屬性들과 오로지 負的인 屬性들을 갖는 것으로서 지각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어떤 他人이 오로지 正的인 屬性들을 갖고 있다고 지각된다면, 그 사람은 존경과 숭배의 대상으로 될 것이며, 어떤 他人이 오로지 負的인 屬性들을 갖고 있다고 지각되면 멸시나 원수관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極端的인 他人들에 관한 연구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네 종류의 대상인물들에 대한 屬性들을 特性들과 類似性들로 구분해서 그 比를 계산해 보면, 特性들의 比는 친밀한 인물에 대해서 .55, 중성적 인물에 대해서 .57, 친교중단 인물에 대해서 .56 및 싫은 인물에 대해서 .64 이었다. 이러한 結果들은 특히 싫은 인물에 대한 P의 지각이 다른 인물들 보다도 特性들의 지각에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것은 또한 싫은 인물에 대한 지각들이 類似性들과 같은 다소 認知的인 성질 보다는 特性들과 같은 다소 感情的인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네 종류의 대상인물들에 대한 屬性知覺들의 總數는 친밀한 인물이 다른 세 종류의 인물들 보다 유의하게 더 컸고, 나머지 세 종류의 인물들 간의 차이는 매우 작았다. 이것은 P/O關係가 밀접할수록 더 詳細한 知覺들을 일으키고 따라서 P/O關係가 더 많은 情報들에 기초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즉, 사람들은 친밀한 인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속성들에 더 많이 注意를 기울이게 되지만, 그 밖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몇 개의 特出한 속성들에 注意를 기울이게 된다. 이것은 P에 대해서 친밀치 못한 사람들의 판단이 固定觀念들이나 圖式들에 주로 기초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 연구 2

이 연구에서 Heider(1958)의 균형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P-O-X 典型(paradigm)에다가 또 하나의 X를 추가시켜서 상황의 기대도와 유쾌도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模型이 複數의 X들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複數의 X들이 포함된 P-O-X 상황의 균형 여부에 관한 연구는 Heider(1958)의 理論과 본 연구의 模型의 詳細化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예 : Aderman, 1969; Insko, Songer 및 McGarvey, 1974; Miller 와 Norman, 1976)에서는 P/O關係의 매력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P-O-X 상황들에 대해서 P와 O 간의 장차의 相互接觸 여부를 변화시켰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상호접촉 여부가 일반적으로 P/O關係 正負要因의 效果를 증대시켰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結果들을 기초로 해서 추리해 볼 때, 기본적인 P-O-X 상황들에 부가적인 제 2의 X를 첨가시키는 것은 態

度—一致度 要因의 效果를 증대시킬 것이 예상될 수 있다.

## 方 法

被驗者:誠信女子大學校 2부의 경영학과와 통계학과 1학년 학생들로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56 명이 본 연구의 피험자가 되었다.

材料 및 節次:피험자들에게 제시된 材料는 “대인관계 상황의 판단조사지”라는 제하의 10 매로 된 질문지이었다. 실험의 목적이 P-O-X 상황들에서의 단일 X와 이중 X에 따른 狀況의 期待度(즉, 인지적 반응; Crockett, 1974)와 愉快度の 差異들을 알아보는 것인 고로 두 종류의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X가 1개인 P-O-X 상황은 이 분야의 8개의 標準狀況들로 구성되었으며, X가 2개인 P-O-X 상황은 각각의 표준( $X_1$ )의 P/X와 O/X 관계들에다가  $X_2$ 에 대한 P/X와 O/X 관계들이 첨가된 상황들로 구성되었다. 상황들의 기대도에 대한 판단은 “상황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기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의 질문에 의해서, 그리고 상황들의 유쾌도에 대한 판단은 “그 상황이 상황속의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유쾌한 상황입니까?”의 질문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었다. 각 개인에 대해서 기대도와 유쾌도가 차례로 판단되었으며, 척도의 양극단은 각각 “전혀 기대될 수 없다—매우 기대될 수 있다”와 “매우 불쾌하다—매우 유쾌하다”로 기술되었다. 척도는 0에서 10까지의 11점 척도가 사용되었고, 중간의 5는 “중간이다”로 기술되었다. 두 종류의 조사지는 피험자들에게 무선적으로 배부되었으며, 각 판단지에 포함된 8개의 상황들의 제시순서는 무선적으로 결정되었다.

## 結 果

두 조건의 피험자들의 8個 社會的 狀況들에 대한 期待도와 愉快度 평정치들의 평균치가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각 평균치들에 대한 變量分析의 결과가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와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상(X)의 중복성과 一致度 要因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有意치 못해서 假說 2는 부정되었다.

期待度 평정치에서 P/O好惡, 態度—一致度 및 均衡의 효과들을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정적 P/O상황들( $\bar{X} = 6.69$ )이 부적 P/O상황들( $\bar{X} = 5.83$ )보다 더 기대되는 것으로 평정되었으며, 태도 일치상황들( $\bar{X} = 6.74$ )이 태도불일치 상황들보다도 더 기대되는 것으로 평정되었고, 균형된 상황들( $\bar{X} = 6.86$ )이 불균형된 상황들보다도 더 기대되는 것으로 평정되었다.

愉快度 評定值에서도 P/O好惡, 態度—一致度 및 均衡의 효과들은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정적 P/O 상황들( $\bar{X}=6.61$ )이 부적 P/O 상황들( $\bar{X}=4.40$ ) 보다도 더 유쾌한 것으로 평정되었고, 태도일치 상황들( $\bar{X}=7.01$ )이 태도불일치 상황들( $\bar{X}=3.01$ ) 보다도 더 유쾌한 것으로 평정되었고, 균형된 상황들( $\bar{X}=6.57$ )이 불균형된 상황들( $\bar{X}=4.45$ ) 보다 더 유쾌한 것으로 평정되었다.

효과들이 유의하였던 세 요인들의 F值들을 比較해 보면, 기대도에 대한 F치들 보다도 유쾌도에 대한 F치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였다.

期待도와 愉快度 평정치들에 대한 균형요인의 영향 형태들은 <도 2> 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도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期待도에 대한 균형효과들의 형태는 +P/O와 -P/O관계에서 태도일치와 태도불일치가 약간 交叉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洪大植(1980a, 1980b)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期待도에서의 균형의 주영향은 +P/O관계에서 태도일치 상황들이 다른 상황들 보다도 훨씬 더 높은 평정치에 기인되어 있다. 한편, 愉快도에 대한 균형효과들의 형태는 <도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O요인과 태도일치도요인이 交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洪大植(1980a, 1980b)

(표 3) 對象의 數條件別 삼원적 사회상황들의 기대도 평정의 平均値

조 건	X에대한태도 P/O관계	一 致					
		+++	+-	소 계	+-+	++-	소 계
단일X	好	8.32	7.46	7.89	5.64	5.57	5.61
중복X		8.04	7.25	7.64	5.88	5.34	5.61
		+++	---	소 계	---+	+-	소 계
단일X	惡	5.75	6.54	6.14	5.82	6.04	5.93
중복X		5.70	4.91	5.30	5.88	6.04	5.96

(표 4) 對象의 數條件別 삼원적 사회상황들의 유쾌도 평정의 平均値

조 건	X에대한태도 P/O관계	一 致					
		+++	+-	소 계	+-+	++-	소 계
단일X	好	9.54	8.36	9.28	4.54	5.25	4.90
중복X		9.55	8.59	9.07	3.34	3.05	3.20
		+++	---	소 계	---+	+-	소 계
단일X	惡	4.54	5.25	4.89	4.79	3.14	3.98
중복X		4.73	4.98	4.81	3.82	4.07	3.94

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되고 있다. 愉快度에서의 균형의 주 영향도 역시 +P/O 관계에서 태도일치상황들이 다른 상황들 보다 훨씬 더 높은 평정치에 기인되어 있다.

(표 5) 期待度 評定值들의 변량분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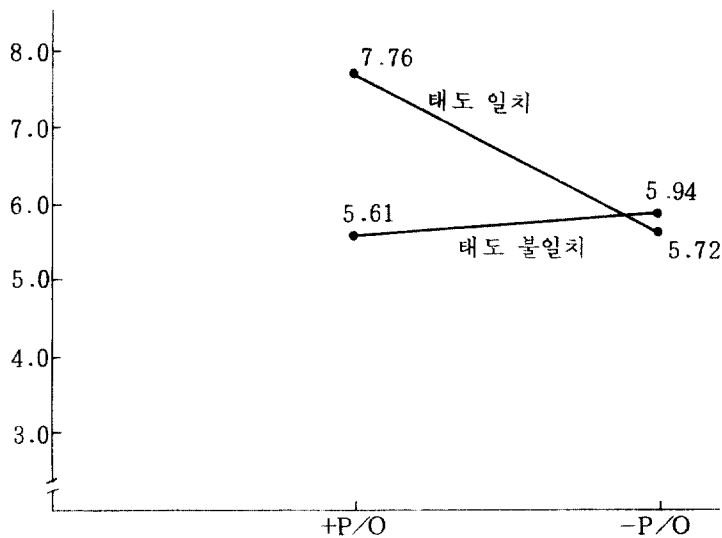
變散源	자승화	df	平均自乘	F
<u>被驗者間</u>	1306.22	<u>55</u>		
대상중복성(A)	15.80	1	15.80	
집단내	1290.42	54	23.90	
<u>被驗者內</u>	2856.94	<u>168</u>		
P/O好惡	163.72	1	163.72	19.12**
AB	4.43	1	4.43	
B×집단내	462.42	54	8.56	
一致度(C)	211.19	1	211.19	13.05**
AC	17.44	1	17.44	1.08
C×집단내	874.18	54	16.19	
BC	317.06	1	317.06	21.37**
ABC	5.31	1	5.31	
BC×집단내	801.19	54	4.84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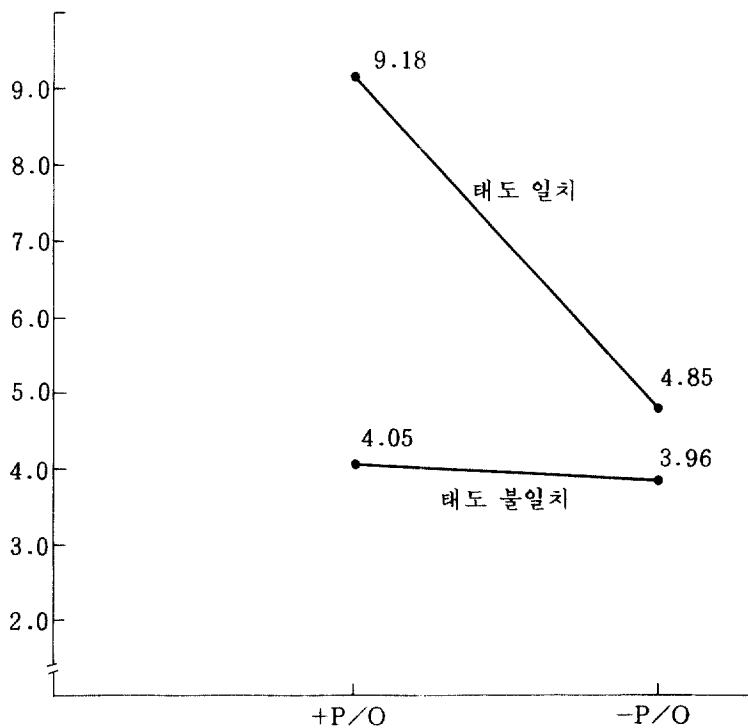
愉快度 評定值들의 변량분석 요약

變散源	자승화	df	平均自乘	F
<u>被驗者間</u>	398.05	<u>55</u>		
대상중복성(A)	.45	1	.45	
집단내	397.61	54	7.36	
<u>被驗者內</u>	6118.50	<u>168</u>		
P/O好惡	686.00	1	686.00	70.77**
AB	.07	1	.07	
B×집단내	523.43	54	9.69	
一致度(C)	2446.64	1	2446.64	135.08**
AB	1.79	1	1.79	
C×집단내	978.07	54	18.11	
BC	1273.02	1	1273.02	329.20**
ABC	2.16	1	2.16	
BC×집단내	208.82	54	3.87	

\*\*P<.01.



[ 도 2 ] 正負 P / O 관계별 一致와 不一致 상황들의 期待度 點數



[ 도 3 ] 正負 P / O 관계별 一致와 不一致 상황들의 愉快度 點數

이 연구에서 X의 중복성 요인은 상황들에 대한 기대도와 유쾌도 평정치들에 대해 態度一致度 요인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가설 2는 부정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적 상황들에서 대상의 數의 증가 자체가 상황들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상의 重要性이나 特出性은 상황지각에 영향을 줄 것이다. 洪大植(1980a)의 연구에서는 중요한 대상들을 P-O-X 상황들에 도입시켜서 대상들에 대한 好惡強度的 효과를 발견한 바 있다. 본 연구의 典型에서 사용된 “P와 O 두 사람에게 관련된 어떤 것”이라는 X의 記述은 P로 하여금 그 特出性を 지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한편, P/O관계 好惡, 態度一致度 및 均衡 요인들의 효과가 유의한 것은 P가 대인관계 상황들에서 이들 세 요인에 注目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X가 중복된 조건들에서도 P는 상기의 세 요인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들이 다소 複雜하더라도 세 요인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계속 찾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期待도와 愉快도에 대한 F치들의 差異는 피험자들이 認知的 次元보다도 感情的 次元에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의 연구 결과들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통의 대인관계는 多重 X를 포함하고 있고, X에 대한 태도일치의 比率은 0이나 1로 치우쳐 있지는 않다. 단순한 P-O-X 상황은 실제의 피험자들의 경험에서 매우 드물고,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期待되는 상황은 못될 것이다. 한편, 愉快도의 요인은 多變하는 상황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에 직결되어 있다.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상황들의 細部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며, 愉快度 반응은 그에 부수되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期待도와 愉快度 次元들에 대한 均衡效果는 Heider(1958)와 Newcomb(1968)의 理論들과 일치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洪大植(1982)이 지적한 바 있다. 洪大植(1975)의 모형에서와 같이 상황에 대한 感情的 反應들은 P/O관계 호오, 태도일치도 및 균형 요인들의 加算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正的 P/O관계의 태도일치 상황들만이 유쾌하고 나머지 6개의 상황들은 서로 거의 비슷하게 不快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이 연구의 기대도와 유쾌도 평정치들의 균형효과의 형태에서 또한 지지받았다고 볼 수 있다.

###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 실제의 대인관계에 관련된 屬性들의 知覺에 대한 자료는 대

인관계 體制가 단순한 P-O-X 體制로 구성되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일상적인 대인관계는 時間的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상호작용의 시간은 증가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共通 對象들에 대한 태도일치나 共通性의 지각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대인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Heider (1958)의 模型으로는 불충분하며, 본 연구의 모형과 같은 多重 X로 구성된 P-O-multiple X의 體制가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에서 단일 대상 보다 이중 대상이 포함된 P-O-X 상황들이 피험자들의 상황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도 대상들의 數의 불충분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의 대인관계 상황에 유사하도록 더 많은 대상들을 포함시키게 된다면, 대상들의 數의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들의 重要性이 측정되거나 변화되지 못하였는데, 이 要因이 대인관계 구조와 力動의 설명에서 필수적일 것이다. 사소한 대상들 보다도 重要할 대상에 대한 태도일치나 공통성의 지각은 대인관계의 好惡度나 持續性을 더 결정짓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模型은 대상들에 대한 일치나 공통성의 知覺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구조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들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2개월 이상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 속성들의 比率은 .68 정도이었다. 이것은 일상적인 대인관계의 構造가 속성들의 긍정성과 부정성의 比率의 어떤 범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아마 대인관계에서 모두가 긍정적이거나 모두가 부정적인 속성들을 지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모두가 긍정적인 속성들을 지닌 인물이란 “예수”, “석가모니” 또는 “공자”와 같이 완성된 인격을 갖는 극히 소수의 존경받는 인물들일 것이다. 모두가 부정적인 속성들을 지닌 인물이란 철천지 원수와 같이 극단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속성들과 부정적 속성들의 比率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交友關係 뿐만 아니라 上下關係, 男女關係, 夫婦關係 등의 여러 형태의 관계에 대해 이러한 속성들의 比率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屬性들이 比率과 관련해서, 다소 흥미있는 결과는 特性들과 類似性들의 比率들이 싫은 인물에 대해서 특히 큰 것이다. 싫은 인물에 대해서는 속성들의 比가 .64인 반면에, 친밀한 인물(.55), 중성적 인물(.57) 및 친교중단 인물(.56)의 비율들은 거의 비슷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싫은 인물에 대해서는 주로 감정적 의미가 큰 特性들을 지각하고, 유사성과 공통성과 같은 사실적 정보들을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싫은 인물에 대해서는 다른 인물들 보다도 구체적 정보들 보다도 피상적 정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위의 같은 分析은 친밀한 인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다. 친밀한 인물에 대한 속성지각들의 총수는 10.13으로서 중성적 인물(6.79), 친교중단 인물(6.44) 및 싫은 인물(6.38) 보다도 훨씬 더 컸는데, 이것은 친밀한 인물과의 관계가 세부적인 많은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친밀한 대인관계는 타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간의 理解가 커지게 되고 서로 간의 갈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친밀한 인물에 대한 보다 더 큰 정보는 그 인물에 대한 非類似性의 사실들을 상대적으로 무시하려는 경향을 일으킬 것이다. 대인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대상들에 대한 태도들의 非類似性이 발생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러한 非類似性들의 필연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 큰 정서적 반응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模型은 대상의 數 뿐만 아니라, 대상의 중요성,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의 비율, 특성과 유사성의 비율을 고려해서 修正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인관계의 기술과 이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洪大植 (1980a). 他人과 對象의 호오강도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請求論文.
- 洪大植 (1980b). 他人에 대한 好惡強度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韓國心理學會誌, 3, 19-27.
- 洪大植 (1985). 三元的 社會關係에서의 認知-感情的 反應의 力學과 對人間關係의 過程. 社會心理學研究, 2, 61-93.
- 洪大植 (1986). 好惡 人物들에 관한 信念의 數와 評價強度. 社會心理學研究, 3, 117-131.
- Aderman, D. (1969). Effects of anticipating future interction on the preference for balanc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14-219.
- Byrne, D. (1961).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ttitude similar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713-715.
- Byrne, D. (1969). *The attraction paradigm*. New York: Academic Press.
- Byrne, D., & Nelson, D. (1964). Attraction as a function of attitude similarity-



- dissimilarity : The effect of topic importance. *Psychonomic Science*, 1, 93–94.
- Cartwright, D., & Harary, F. (1956). Structural balance : A generalization of Heider's theory. *Psychological Review*, 53, 277–293.
- Crockett, W. H. (1974). Balance, agreement,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P–O–X tria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102–110.
- Fuller, C. H. (1974). Comparisons of two experimental paradigms as tests of Heider's balance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802–806.
- Heider, F. (1946). Attitude and cognitive organ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21, 107–112.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Wiley.
- Insko, C. A., Songer, E., & McGarvey, W. (1974). Balance, positivity and agreement in the Jordan's paradigm : A defense of balance the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53–83.
- Jordan, N. (1953). Behavioral forces that are a function of attitudes and cognitive organizations, *Human Relations*, 6, 273–278.
- Kandel, D. B. (1978). Similarity in real-life adolescent friendship pai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306–312.
- Kiesler, C. A., Collins, B. E., & Miller, N. (1969). *Attitude change : A critical analysis of theoretical approaches*. New York : John Wiley & Sons.
- Miller, C. E., & Norman, R. M. G. (1976). Balance, agreement and attraction in hypothetical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109–119.
- Newcomb, T. M. (1953).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60, 393–404.
- Newcomb, T. M. (1959). Individual systems of orientation. In S. Koch (Ed.), *Psychology : A study of a science*, Vol. 3, New York : McGraw–Hill, pp. 384–422.
- Newcomb, T. M. (1961). *The acquaintance process*, New York : Holt.
- Newcomb, T. M. (1963). Stabilities underlying changes in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376–386.
- Newcomb, T. M. (1968). Interpersonal balance. In R. P. Abelson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 A sourcebook*. Chicago : Rand McNally

and Company, pp. 28-51.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 Rodrigues, A. (1965). O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me parameters of balance. *Journal of Psychology*, 61, 241-250.
- Rodrigues, A. (1966). The psycho-logic of interpersonal rel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Rodrigues, A. (1967). Effects of balance, positivity, and agreement in triadic soci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72-476.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83-294.

## ABSTRACT

### **Perceived Attributes of Other Persons and Balance of P-O-X Situations**

**Hong, Dae-Shi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It was hypothesized that (1) the number of perceived positive attributes of close persons will be greater than that of neutral, discontinued-friendship and disliked persons and the number of negative attributes will show opposite tendency and (2) double Xs will produce greater agreement effect in the P-O-X situations than single X. These hypotheses were based upon Hong's(1985, 1986) model of interpersonal structures.

In the first study, the first hypothesis was supported on the positive traits, negative traits and similarities between P and O. Contrary to the first hypothesis, the number of dissimilarities between P and O was greatest in the close persons. The second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by expectedness and pleasantness ratings of P-O-X situation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the Xs, propor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attributes and proportions of traits and similarities. Further modification and extension of the Hong's model were suggested.